

석유화학 경기 갈수록 악화된다!

전경련, 11월 화학·플라스틱 64-75 불과 ... 대외 불확실성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상대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1월 전망치가 96.4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고 10월30일 발표했다.

10월 BSI 101.4보다 5p 낮아졌다.

매출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한 가중전망지수도 97.6으로 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유럽 및 미국의 재정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제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대내적으로도 채산성 및 자금사정 악화, 환율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제품(64.4), 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75.0), 방송·통신업(80.0), 건설업(80.7) 등의 전망이 나뉘었다.

10월 경기실사지수 실적치는 9월보다 1.4p 떨어진 95.0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내수(105.2), 수출(102.3)은 좋았지만 자금사정(94.8), 고용(97.2), 채산성(97.7), 투자(99.1)는 부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31>